

## 1. 서론

“울지 마라. 이 곳은 무슬림의 나라가 아니라 불교도의 나라다. 떠나라.”

(Fink 2001: 226)

로힝야족(Rohingya)<sup>2)</sup>은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분포하고 있고, 이 중 미얀마의 러카잉(Rakhine: 과거 아라칸 Arakan)주에만 13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Wikipedia 2017). 로힝야족은 8-9세기 이후 이슬람 상인과 함께 미얀마로 내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7세기까지는 무갈 왕국의 영향력 하에 이슬람의 전통과 관습을 유지해왔다(장준영 2015). 이 때 다수의 로힝야족은 스스로를 지역 토착민으로 인식하였으며 무갈 왕국 이후 러카잉주가 상좌불교(Theravada Buddhism) 중심의 러카잉 왕국에 병합되면서 러카잉 지역에서는 불교와 이슬람의 평화적 공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박장식 2013). 또한 미얀마는 정부가 인정하는 종족집단이 135여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고 이질적인 다문화, 다종족 국가이다. 전체 인구의 87.4%가 상좌 불교의 전통을 신봉하는 다수의 불교도로 구성된 국가이기도 하다(Myanmar population 2017). 다수의 불교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공표된 국교가 존재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기독교 6.2%, 이슬람 4.3%의 종교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에서는 소수종족이자 종교적 소수자인 로힝야(Rohingya) 무슬림에 대한 학살 및 인권 탄압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와의 국경지대인 미얀마 북부의 러카잉(Rakhine)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에 대한 불교도, 버마족, 군부와 정부의 폭력 사태와 탄압 정책이 시행되면서 로힝야 문제는 대대적인 인권침해사태, 더 나아가서는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78년 반무슬림-반토착민 정책으로 인하여 로힝야의 피난 생활이 시작되었고, 2012년 5월에 발생한 불교도 러카잉 버마족 여성에 대한 무슬림 남성의 강간 및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불교도 러카잉 버마족의 보복 살인 및 방화 등 유혈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013년 3월에는 중부 지역에서 불교도와 무슬림간의 충돌이 발생하였고, 2016년 10월 로힝야가 미얀마 경찰의 국경초소를 습격하면서 정부는 이들 무장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군사작전에 돌입한다. 그리고 최근 2017년 8월, 로힝야의 자치권과 평등을 요구하는 아라칸로힝야구원군(ARSA: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이 등장하면서 정부는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얀마 내 130만 명의 로힝야 중 약 60만 명 이상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로 내몰렸다.

2012년 이후 불교도 대 무슬림이라는 구도로 폭력사태가 전개되기 전에는 러카잉 불교도 버마족과 로힝야 무슬림 간의 분쟁이 미얀마 근대사 속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다수와 소수의 종족 분쟁이라는 보편적인 시각으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최근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불교도와 무슬림을 대변하는 종교기반의 종족분쟁(religio-ethnic conflict), 즉 이종교간 폭

1) 본 발표문은 인용되기에는 아직 미진한 미완의 원고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Rohingya’는 미얀마어 발음으로 ‘로힝자’, 영어 발음으로는 ‘로힝야’, 벵갈어 발음으로는 ‘로힝가’로 다르게 읽힌다. 본문에서는 영어 발음을 기준으로 ‘로힝야’로 표기하기로 한다.

력이라는 종교 갈등의 측면으로 해석되고 있다.

로힝야 사태는 미얀마의 국내적 문제이기도 하고, 다양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제적 책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반인도적 범죄이자 잠재적 대량학살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에 준거하여 미얀마 주변 국가 및 국가 공동체, 그리고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증대되고 있다(Southwick 2015).

국내의 미얀마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정치·외교 분야의 논문이 전체 연구논문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지조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미얀마의 국내정치적 특성으로 인해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가 가능한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오운아 2017). 이러한 미얀마 연구는 주로 정치체제, 군부, 민족주의, 종족 정체성 등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고, 본 연구의 핵심 사례인 로힝야 사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폭력사태의 원인과 전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로힝야 사태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왜 로힝야 사태가 발생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로힝야 사태에 대한 국내외 기존 연구들에 모두 나타난다. 로힝야 사태에 관한 국내의 연구(김성원 2006; 박장식 2013; 장준영 2015, 2017)는 모두 로힝야 사태의 역사적 기원, 전개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로힝야 사태에 대한 국내의 반응 및 국내 시민사회의 대응과 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미얀마의 로힝야 사태와 그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로힝야 사태에 대해 어떻게 반응 및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을 로힝야 사태를 뉴스로 접하는 일반 시민과 인권 및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 시민사회로 구분한다. 일반 시민의 반응은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메인에 배열된 로힝야 관련 기사 중 댓글이 100개 이상 달린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추천순’으로 댓글을 나열했을 때 상위에 위치하는 댓글, 즉 다른 네티즌들의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내용을 토대로 일반 시민들, 네티즌들의 반응을 읽어내고자 하였다. 한국 시민사회의 반응 및 대응은 오늘날까지 미얀마 인권 및 평화, 개발협력을 주제로 활동을 전개해온 주요 시민단체들이 현재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로힝야 사태에 주목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 현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 2.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 부역자와 반무슬림

로HING야 사태와 관련된 국내 기사들은 2017년 8월 25일, 아라칸로HING야구원군(ARSA: Arakan Rohingya Salvation Army)이 경찰초소를 습격하고, 정부가 이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면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수행한 이후부터 활발하게 작성되었다. 2017년 9월 이후에는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메인에 로HING야 사태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배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네티즌들이 로HING야 사태와 관련된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1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많은 네티즌들이 읽은 기사들의 '베스트 댓글'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 (1) 부역자, 로HING야

첫 번째는 로HING야를 영국이 식민지배시기에 식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불러들인 이주민으로 인식하고, 그들은 식민세력에 협조한 '부역자'로 평가하는 것이다. 로HING야를 부역자로 평가하는 댓글은 아래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로HING야를 영국의 식민지배시기에 미얀마에 내도한 이주민이라는 역사를 드러내면서 우리나라의 친일 세력과 유사한, 즉 미얀마의 친일 파임을 강조하고 있다. 로HING야는 부역자이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친일파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와 미얀마 국민들이 로HING야를 내쫓고 그들이 인종청소와 같은 잔혹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인과응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HING야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그들을 미얀마 땅으로 불러 들여온 영국이 책임져야하며, 로HING야는 미얀마에서 나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림 1> 로HING야를 '부역자'로 표현한 댓글들

한국으로 빚대자면 일본이 중국애들 데려와서 통치관리로 임명해 이주시켰는데 한국이 독립운동으로 중국관리를 내쫓으려 하나 왜 내쫓으며 오히려 한국 나무라는 꼴이잖아. 말하려면 영국에게 따져야지. 기자 본인이 데려가서 사비로 먹여살릴거 아니면 이런 기사 그만써라. 몇 주전에 한국신문에도 기사 뺐잖아. 미얀마인이 한국언론에 로HING야는 미얀마 민족 아니라고 그리 말하는데도 이런 기사 나오냐.	
답글 13	👍 663 🗨️ 65
출처: 국민일보. 2017/11/27/. "'로HING야 학살' 수치 둘 맞을 때, 주범은 웃는다."	
방글라데시의 로HING야족을 코드겨서 미얀마로 이주 시켜서 미얀마 지배에 이용하고 강간, 약탈, 폭행하도록 목인 사주했던 영국이 책임져라.	
답글 6	👍 1200 🗨️ 40
출처: 연합뉴스. 2017/09/12/. "'히잡 쓴 힌두교도가 로HING야족?' 딱걸린 방화조작 사진."	
그런얘기는 영국신문에다 말해야 한단다가야 너네 거기다 쳐박아 넣고 나몰라라 한 놈들이 영국놈들이야	
답글 33	👍 1680 🗨️ 79
출처: 서울신문. 2017/11/18/. "'답때 잡듯 칼로 마구..' 로HING야족 소녀가 전한 '그날'"	

응 알았어..친일파 같은 족...니들 생각하면 불쌍한건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피 빨아 먹던 친일파 종족 생각하면 그냥 등 돌리고 싶어.

답글 4

👍 305 🗨️ 50

출처: 서울신문. 2017/11/18/. "'닭뿔 잡듯 칼로 마구..' 로HING야족 소녀가 전한 '그날'"

친일부역자 출신과 똑같은 죄를 지은것인데 무슨? 자비를 베풀어오  
우리가 친일부역자 청산을 못하고 방관하고 하니까  
버릇 들었습니까?  
로HING야족의 말로는 자업자득이예요!

답글 21

👍 887 🗨️ 139

출처: 연합뉴스. 2017/11/02/. "아웅산 수처, 로HING야 '인종청소' 사태 현장 첫 방문."

교황이 나설 것이 아니라, 영국이 나서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영국 너희들이 로HING야족을 데려다가 미안마 사람을 괴롭혔으니  
너희 나라로 데려가든지, 고향에 데려다 주든지 해라.

답글 28

👍 976 🗨️ 45

출처: 국민일보. 2017/11/27/. "'로HING야 학살' 수처 돌 맞을 때, 주범은 웃는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로HING야를 부역자로 인식하고 있는 댓글들은 적게는 300개, 많게는 1000개가 넘는 ‘공감’을 얻고 있다. 국내 네티즌들이 로HING야를 친일파와 같은 존재, 부역자로 인식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다수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의 댓글 중 로HING야가 부역자로서 역할을 수행했고 그들의 역사적 기원이 영국 식민 시대부터 시작된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설명을 동반한 댓글도 대거 존재한다. 이러한 댓글 역시 아래에서 보다시피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2> 로HING야 관련 역사 언급 댓글들

로HING야 사태를 바로 알아야 ....  
미안마는 전통의 불교국가인데  
이슬람쪽의 내분으로 피난민들이 미안마로 너머와 .. 로HING야에 뿌리를 내렸다  
불교국가인 미안마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 로HING야의 이슬람인들이 분리독립을 요구하면서 사태가 벌어졌다  
미안마는 이슬람 피난민들을 받아 주고 삶의 터전을 양보 했는데  
미안마 국토 안에서 이슬람 국가로 분리 독립 하겠다니 ... 뭐 주고 뺏 맞는 꼴이다  
입장을 바꾸어 보라 .....  
이슬람인들이 로HING야에서 미안마의 국민으로 자신의 종교를 간직한채 조용히 살아가겠다고 하면 .....

답글 5

👍 69 🗨️ 7

출처: 뉴스스. 2017/12/10/. "미안마의 '로HING야 지우기' 현실화 되나"

미얀마 입장이 어느정도 이해간다 왜 남의 땅에 무단으로 넘어오나

답글 12

👍 1031 🗨️ 55

출처: MBC. 2017/11/07/. "'로HING야는 미얀마 민족이 아니다.'"

영국이 미얀마 분열시킬려고  
들여온 종족 이후 친일도  
했었고 지들이랑 종교가 다르다고  
불교 믿는 사람들 참수하고  
석탑을 무너뜨리게 로HING야족이라함  
미얀마 역사를  
모르고 인종청소 얘기를  
하지말라더라

답글 112

👍 1584 🗨️ 146

출처: 연합뉴스. 2017/09/20/. "'인종청소' 로HING야 마을들 초토화 위성으로 재확인."

질문하나요=====만약에-  
일제대 일본주인님들이 회교도들 수입해와서  
우리민족 탄압용으로 부려먹다 해방되었다면  
우린 그 회교도들을 이땅에서 계속 주인으로 모실것인가요

답글 6

👍 194 🗨️ 5

출처: 연합뉴스. 2017/09/30/. "미얀마서 학대받다 밀려난 로HING야 난민 '돌아가고 싶지 않다.'"

댓글 작성자들이 로HING야를 부역자로 인지하고 있는 핵심 근거는 '이슬람의 내분으로 쫓겨난 무슬림이 미얀마로 넘어왔으며', '로HING야는 영국이 미얀마 분열을 위해 들여온 종족'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위 댓글들에서 보이는 인식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어느 한 논리나 주장에 편향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로HING야는 영국이 식민지배시기에 불러들인 무슬림 이주자들인가? 실제로 로HING야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로HING야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 및 국민과 로HING야 간의 논쟁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미얀마 정부와 다수의 미얀마 국민들은 로HING야가 로HING야 스스로를 부르기 위해서 '발명'된 용어이며, 미얀마 역사 내에서 그러한 용어는 존재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즉 로HING야에 대해 정부와 로HING야 이외의 집단들은 벵갈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이라는 뜻의 벵갈리(Bengali) 또는 불법이주자로 부르면서 영국식민시기에 인도로부터 이주한 노동자와 상인, 그리고 무슬림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Southwick 2015). 반면에 로HING야 지도자들은 식민시대 이전부터 러카잉주에 존재한 무슬림 공동체의 후손이 로HING야라고 주장한다(Coates 2014). 로HING야 사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중 많은 연구들 역시 로HING야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서 토착민, 혹은 비토착민으로서 로HING야의 역사적 기원을 다루고 있다. 다음 <표 3>은 원인과 전개를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로HING야 사태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기존연구를 통해 본 로힝야의 역사와 사태의 전개<sup>3)</sup>

5-18세기	이슬람 상인과 함께 미얀마로 로힝야 내도
18세기 이후	러카잉 지역에서의 상좌불교 전통확립
1824~1826년 제1차 버마-영국 전쟁 이후	개방된 이민, 이주정책 시행, 벵갈무슬림 유입 영국식민정부에 적극 협조
1930년대 종교폭동	다수 버마 불교도 vs. 인도계 후손인 무슬림 이주자
1942-45년 일본점령기	영국식민정부 편에서 버마독립운동에 반대
1947년 분리주의 운동	러카잉주 내 무슬림 자치주 건설 목적 무자히드당 창당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 정부에 러카잉주 합병 요청
1962년 네윈 장군 쿠데타	로힝야 무슬림의 사회적 활동 제한
1974년 긴급이민법 제정	미얀마 국적인에게 국민등록증 발급
1978년 2월 군사정부, NegaMin 작전 수행	국민-외국인 구분을 위한 개인 조사 로힝야 무슬림, 방글라데시로 긴급 피난(20만 명)
1982년 버마시민권법 (Burma Citizenship Law) 개정	국민: 제1차 미얀마-영국 전쟁 직전 1823년 기준, 버마 정착해 있던 135개 '종족'에 속하는 경우 준국민: 조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1948년 시민권법 발 표된 날까지 시민권 신청자의 경우 귀화민: 부모 중 한 명 '국민', 다른 한 명 '준국민'인 경우, 미얀 마 독립 이전에 입국 및 거주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며 미얀 마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미얀마에서 태어난 자녀
1989년 시민권 카드(CSCs: Citizens Scrutiny Cards) 도입	시민: 분홍색, 준시민: 파란색, 귀화민: 초록색 로힝자에게는 카드 발급되지 않음
1991년 군사작전 재개	89년부터 시작된 로힝야 무장단체에 대한 진압작전, 불법이민자 조사의 후속조치로 로힝야족 추방작전 재개(25만 면 난민 발생)
1994년 시민권 박탈 심화	로힝야 신생아에 대한 출생증명서 발급 중단 무슬림에 대한 결혼 허가제, 강제노동, 임의 과세, 토지몰수 등
1997년 미얀마-방글라데시 송환 합의	UN 개입 하에 2만 명의 난민 송환 결정 일부난민의 재입국 문제 해결 실패하면서 송환 보류
1998년 로힝야 무장단체 통합	1960년대부터 존재해왔던 여러 무장단체 ARNO(Arakan Rohingya National Oranization)으로 통합
2005년	2명 이상의 산아제한 조항 추가되어 혼인허가제 재개

3) 김성원 2006b, 박장식 1996; 2013, 장준영 2012; 2015; 2017, Abdelkader 2013, Blomquist 2015, Cheung 2011, Coates 2014; Hre·Mang 2013, Kiraga·Rosi·Morris 2011, Kyaw 2014, Leider 2008; 2014, Lewa 2009, Marshall 2013, Matthews 1993, Kipgen 2013; 2014, Nyi Nyi Kyaw 2008, OHCHR 2017, Robinson·Rahman 2012; Schober 2006, Singh·Haziq 2016, Southwick 2015, Parnini 2013, Ware 2015, Zarni·Cowley 2014.

2007년 4월	6명의 UN 특별조사관, 미얀마 정부에 대한 합동성명서 발표
2011년 1월 태국의 보트피플 거부	태국 국경 해안지대에 도착한 로힝야 난민보트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 사건으로 세계적 관심 유발
2012년 6월 사태	5월 28일, 러카잉 불교도 여성에 대한 무슬림 청년 3명의 강간 및 살해 6월 3일, 마을버스에서 10명의 무슬림 남성 피살 650명의 로힝야 사망, 최소 1,200명 실종 6월 10일, 테인세인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러카잉주 내 무슬림 거주지, 러카잉족 집단의 공격으로 전소 20만 명 이상 난민 발생
2012년 10월 21일 폭력사태 재발	6월 사태의 단계적 확대 러카잉 전역에 걸친 무슬림 공동체에 대한 불교도의 방화 및 살인 84명 사망, 129명 부상, 2950개 가옥소실, 14개 종교시설소실
2016년 10월 폭력 사태	로힝야족 남성들의 경찰초소습격, 교전 발생 2017년 2월까지 정부의 토벌작전 전개
2017년 8월	아라칸로힝야구원권(ARSA), 경찰초소습격 정부, ARSA를 테러 단체로 규정, 토벌작전 수행 로힝야 난민 60만 명 발생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로힝야의 역사적 기원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에서 로힝야, 무슬림이 미얀마로 내도한 시점은 이르게는 5세기, 늦게는 18세기로 언급되고 있다. 15세기에서 18세기에 러카잉주(당시 지명은 아라칸; Arakan)에 존재했던 마지막 왕국에 적지 않은 무슬림들이 거주하였고, 18세기에 지어진 무슬림 사원이 러카잉주 내에 존재(Charney 1999)했다는 점들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로힝야가 거주하고 있는 러카잉 지역은 다양한 왕족과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힌두교, 이슬람, 불교와 이슬람의 혼합, 불교의 영향력에 놓이는 시기를 거친 지역으로 설명된다(박장식 2015). 물론 러카잉 지역은 불교도의 터전이었고 무슬림은 이후에 이주했다는 역사학자(U Khin Maung Saw)의 주장도 존재하며, 로힝야가 식민주의 시대의 시작과 함께 농업노동을 위해 러카잉 지역으로 온 일시적인 이주자라는 주장(Chang 2005)도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힝야의 역사적 기원은 아직 하나의 사실로 점철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바라볼 때, 로힝야를 영국식민지배시기에 유입된 무슬림 이주자로만 규정하는 시각의 댓글들은 한 편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그러한 내용만을 내재화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로힝야가 영국식민시기 당시에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버마족의 독립운동에 반대한 일도 단순히 식민지배세력의 편을 들고 미얀마가 ‘미얀마’라는 하나의 국민국가로 형성되기 전까지 미얀마는 다양한 종족 공동체, 왕족, 제국이 상존하던 지역이었음을 감안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얀마와 한국의 식민시기 역사와 당시의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의 댓글 중 ‘최근 로힝야가 분리 독립을 요구하였으며’, ‘불교 믿는 사람을 참수하고’ 배척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로힝야 사태는 앞서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62년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으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개된 일이다.

하나의 사건에 관한 다양한 주장 중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고 그를 주장하는 일과 토론을 통

해 논쟁의 해소에 기여하는 일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로힝야 사태에 대한 댓글들은 하나의 주장과 입장에만 편향되어 있고, 로힝야 역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한 쪽의 주장을 사실인 것과 같이 믿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로힝야 사태를 보도하는 국내의 언론이 로힝야 사태에 대한 논쟁적인 주장과 역사를 모두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은 그러한 정보의 편향성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선 댓글들이 실린 기사들은 로힝야에게 가해지는 학살과 피난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고, 기사의 대부분이 2017년 8월 25일 사건을 기점으로 로힝야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로힝야족 반군단체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은 미얀마에서 꺾박받는 동족을 보호하겠다고 미얀마에 항전을 선포하고 지난 8월 25일 경찰초소 30여 곳을 습격”(연합뉴스. 2018/02/08/. "미얀마, 로힝야족 식량공급 차단 천천히 굶겨죽인다." )

“로힝야족과 미얀마 군부 및 불교 근본주의 세력의 해묵은 갈등은 지난달 25일 로힝야족 반군단체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의 경찰초소 습격으로 다시 불붙었다.” (연합뉴스. 2017/09/12/. "'히잡 쓴 힌두교도가 로힝야족?' 딱걸린 방화조작 사진.")

그러나 2017년 8월 25일에 발생한 사건은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대규모 탄압작전의 재개와 심화를 야기한 것이지 로힝야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다루질 수는 없는 사건이다. 로힝야 사태 발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로힝야가 미얀마에 내도한 시점에 관련한 논쟁과 로힝야가 무국적자 신분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982년 버마시민권법(Burma Citizenship Law) 개정,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던 인구조사, 그리고 로힝야족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과 무력 충돌이 발생한 2012년 6월 사태 등이 모두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언론 역시 로힝야 사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소개하고 보도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의 편향성이 극복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기사를 접하는 일반 시민, 네티즌 역시 기사의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점검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 (2) 반무슬림 정서: 국내의 이슬람포비아

로힝야 사태 관련 기사에 달린 주요 댓글들 중 다른 하나의 주요한 경향은 반무슬림 정서로 표현된다. 로힝야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고, 무슬림은 원래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힝야도 역시 먼저 폭력 사태를 시작한 것이며, 이슬람 국가가 로힝야를 책임져야 한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댓글들 역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표 4> 반무슬림 정서가 나타나는 기사 댓글

이슬람 국가들이 로힝야족을 받아주면 되겠네..	
2017-09-22 20:51:24   제기요청	
답글 18	756 27
출처: 노컷뉴스. 2017/09/22/. "로힝야족, 불타는 마을에서 쫓겨나 또다른 생지옥으로."	

이슬람은 이슬람끼리 살아라. 다문화반대.외노자 추방.대한민국에 이슬람 증가로 지방은 어딜가나 보자기 뒤집어쓴 여자들.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답글 7 👍 136 🗨️ 29

출처: 뉴시스. 2017/12/10/. "미얀마의 '로힝야 지우기' 현실화 되나"

불교 국가인 미얀마  
이슬람교인 로힝야족

답글 20 👍 1371 🗨️ 77

출처: 김현지. 2017/12/16/. "아웅산 수치 칩목 속에 아이들이 산채로 태워지고 있다."

로힝야가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것은 자유인데, 한국에 데려오자고 하지는 말자. 지금 로힝야 뉴스가 매일 나오는 이유가 동정심 자극해서 난민 한국에서 받아주고 하는게 목적이야. 다들 경계 하자. 길거리 거지가 불쌍하다고 집에 데려오지는 않잖아? 돈을 좀 줄 수는 있어도. 다들 잘 생각해라. 돈을 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해도 난민을 한국에 데려오면 절대 안돼

2017-09-22 22:36:08   접기요청

답글 3 👍 139 🗨️ 0

출처: 노컷뉴스. 2017/09/22/. "로힝야족, 불타는 마을에서 쫓겨나 또다른 생지옥으로."

암튼 지구상의 모든 테러는 이슬람에서 나온다.  
그러게 왜 먼저 사자의 콧털을 쑤셨나?  
로힝야는 식민지 시절 미얀마 불교도들을 탄압하지 않았나?  
주변 이슬람 국가들은 로힝야들을 난민으로 받아줘라.

답글 7 👍 230 🗨️ 25

출처: 연합뉴스. 2018/02/08/. "미얀마, 로힝야족 식량공급 차단 천천히 굶겨죽인다."

무슬림을 받지 않겠다는 수치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무허가로 미얀마에 무슬림들이 사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무슬림 또한 테러집단이기에 받아보았자 미얀마에 암적인 존재가 된다. 이참에 그들의 고향으로 전부 가도록 해야 한다.

답글 2 👍 259 🗨️ 20

출처: 연합뉴스. 2017/09/12/. "'히잡 쓴 힌두교도가 로힝야족?' 딱걸린 방화조작 사진."

이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 반무슬림, 즉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에 기반한 표현으로 보이며 이러한 반무슬림 정서는 로힝야를 난민으로 수용하는 문제를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수용하면 안된다는 적대심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댓글에서 표현되는 반무슬림 정서와 공감의 정도는 국내에서 이슬람포비아가 꽤 많은 공감을 얻고 있고, 로힝야 이슈가 인권 유린과 대량학살로 이어지는 인도적 관점의 사안이 아닌 '무슬림'이 주인공인 이슈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러한 댓글들은 대부분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라는 인식과 '타종교, 타종족 배척'이라는 반(反)다문화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서 이슬람 혐오, 반무슬림, 이슬람포비아를 핵심 주제로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내의 반 무슬림 정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슬람 혐오 현상

의 원인과 양상,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국내에서의 이슬람포비아 현상은 2010년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는 2009년 911테러,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로 인한 무슬림의 유입, 이주민 종교의 한국사회 유입(권혁률 2015, 박종수 2017)으로부터 출발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슬람과 관련한 테러와 폭력의 이미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이로 인해 이슬람에 대한 공포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각종 미디어와 개인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무슬림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라는 주장이 강화되고,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글들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면서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과장된 주장과 허위 사실이 확대 및 재생산되었다는 것이다(김동문 2016).

이러한 이슬람혐오 현상은 ‘한국 시민 일반에게서 나타나는 태도’로서의 이슬람 포비아와 ‘한국 기독교가 이슬람에 대한 가지는 태도’로서 나타나는 혐오로 구분되고(김동문 2016), 형태로는 말 또는 글로 나타나는 유형과 직접적 혐오 행동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문시영 2016). 이슬람 혐오와 관련된 표현들은 이슬람을 IS 테러집단과 동일시하며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임을 부각하는 것과 할랄과 같이 이슬람과 관련 있는 의례 및 관습에 대한 노골적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개신교적 입장을 대변하며 종교로서 반대하는 것으로 구분된다(박종수 2017). 이슬람포비아, 반무슬림 정서를 보이는 댓글과 표현들은 종교에 대한 공격과 인신공격 간의 차이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한 구분이 어려운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표현들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반무슬림 정서를 표출하고 접하면서도 그것이 혐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한다는 김동문(2016)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로힝야 사태에 대한 댓글들의 반무슬림 정서, 이슬람 혐오의 감정은 이슬람을 종교로 가진 모든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종교에 대한 무지 또는 편견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국내 이슬람 혐오, 반무슬림 정서와 관련한 사례 및 분석들과 로힝야 사태가 다른 점은 테러행위를 일삼는 IS와 같은 가해자로서의 무슬림이 아니라 인권 유린, 학살을 당하는 피해자로서의 무슬림의 모습을 보도하는 기사에도 이슬람 혐오, 반무슬림 정서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지 않고 소급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혐오라는 감정은 “이 데올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며, 이러한 감정은 정해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고 양성”된다는 것이라는 캐롤린 엠케(Carolin Emcke 2017; 박종수 2017: 50에서 재인용)의 주장과 같이 사건과 사례마다 상황을 판단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 ‘이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훈련되고 양성’된 혐오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힝야 사태는 앞서 밝혔듯이 논쟁적인 역사적 기원,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어온 과정과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사건이지만 그것들을 떠나 로힝야라는 소수 종교, 소수 종족의 인권이 유린되고 방화, 폭행, 총기살해 등의 수단을 통해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짓밟히고, 기본권을 상실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은 학술적인 접근과 분석이 진행됨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표현되고 있는 로힝야 사태에 관한 댓글들은 로힝야 사태와 관련한 사실에 대한 접근에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 역시 결여되어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폭력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일방의 주장처럼 로힝야가 ‘영국 식민지배시기에 영국에 부역하기 위해 미안마에 내도한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는 방법을 통해 그들을 쫓아내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부역자’라고 판

단하는 개인적 견해를 근거로 그러한 행위와 사건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무슬림, 이슬람이라는 집단에 대한 이미지로 바라보기보다 인간 개개인으로서의 로힝야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 3. 한국의 시민사회: 연대

#### (1) 미얀마 관련 인권 문제를 위한 국내 시민단체 활동의 역사와 현재

미얀마의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주로 1990년대에서 출발한다. 국내사정에 집중되었던 한국의 인권운동의 흐름과 대상이 점차 아시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당시 미얀마(버마)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가 인권운동을 전개하는 국내 시민단체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이다. 당시 미얀마는 장기간의 군부 독재를 겪으며 인권과 관련하여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으며 민주화운동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지에 대한 가택연금, 강제노동, 경제제재 등과 같은 문제가 산재해있었고, 국내의 한 기업이 미얀마에 방위산업물자를 수출한 사건과 국내에 이주해 온 미얀마 이주민들의 민주화 운동 전개 등과 같은 일들로 한국과의 연관성이 심화되고 있었다(전제성 2006). 그 중 참여연대가 2004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연대 활동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상정하였고, 2006년 참여연대의 국제연대위원회가 미얀마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추진하면서 미얀마 인권을 위한 국내 시민단체의 활동과 연대는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미얀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나 사이버공동체들이 출현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내 미얀마인 활동가를 채용하거나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미얀마 이주민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당시 미얀마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2006년 서남포럼에서 발간한 『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는 1990년대 이래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연대운동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시민단체를 분야별로 나누어 활동을 정리 및 평가한 자료집이다. 이 백서는 2006년 당시까지 동아시아 연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던 시민단체의 현황을 소개한 유일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만, 2006년 이후에 동아시아 연대 운동을 정리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지 않았으며, 현재 동아시아 연대 운동과 관련한 자료 및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백서에서 ‘인권’ 분야로 분류된 시민단체는 주로 미얀마를 대상으로 연대 운동 사업을 전개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미얀마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연대 사업을 진행한 당시의 단체들이 현재는 어떤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로힝야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백서에 분류 및 정리되어있는 미얀마 인권 운동 관련 시민단체 중 [나와우리]는 현재 사이트 연결이 불가하고, 온라인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2011년 활동이 마지막이었다. 미얀마 민주화와 난민 교육을 의제로 활동을 전개했던 [버마<sup>4)</sup> 민주화와 난민교육 지원을 위한 모임]은 사이트는 연결이 불가하고, 2008년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인 메솟에 위치한 난민촌에 방문했다는 게시글이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있다. 이 단체의 이름으로 진행된 사업은 그 이후로 찾아볼 수 없지만, 해당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함께 전개했던 부천 거주 미얀마 이주민들이 부천이주민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미얀마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주로 부천이주민지원센터 내에 존재하는 “미얀마 공동체”를 중심으로 각 이주민 공동체 리더 회의를 진행하거나 미얀마의 명절을 치루는 행사를 조직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게시된 글이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

---

4) 당시 군부 집권 이후에 군부가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변경한 이후, 국내외 민주화 운동가들은 군부 세력 집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맥락에서 국명을 ‘미얀마’로 칭하지 않고, 계속 ‘버마’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화 운동 당시 ‘버마’라는 국명을 포함하고 있는 공식 단체명의 경우와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 앞에 붙는 수사인 경우, ‘버마’를 ‘미얀마’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태국에 소재한 ‘국경 없는 친구들’을 지원하고 당시 버마 난민 문제와 관련한 활동가들의 연대 모임인 [만원계: 국경 없는 친구들과 연대하는 모임]은 2009년을 마지막으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미얀마와 관련하여 최근 2017년 개최된 ‘2017 서울민주주의포럼’에 미얀마 정치평론가를 초청하여 활동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미얀마 로힝야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국내외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전개하는 [인권실천시민연대](현, 인권연대)는 국내 인권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중심으로 현재 활동 중이며, 온라인 홈페이지 내 ‘인권연대 세상읽기: 목에 가시’라는 게시판을 통해 인권 관련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칼럼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이 중에는 미얀마 로힝야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활동가의 글도 기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6년 작성된 백서에서 주 연대 대상 국가를 미얀마로 상정하고 있는 단체로, 당시에는 버마민주화 운동가를 상근 활동가로 채용하기도 하고(전제성 2006), 2008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버마민주화 운동가 8명을 위해 난민인정불허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기도 한 단체이다. 현재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상근하는 국내 거주 미얀마인 활동가는 없으며, 국제연대사업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함께하는 시민행동] 내부에서 미얀마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 ‘따비에’를 발족하였는데, 이 단체가 2011년도 별도단체로 독립하면서 독립적인 미얀마 어린이 교육 지원 단체로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비에]는 현재 미얀마 현지에도 10명의 현지 활동가를 두고 있으며 도서관 설립 및 책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비에]가 로힝야 문제와 관련하여 활동한 이력은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집담회를 공동주최한 한 건 뿐이다. [버마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은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인데, 2006년 6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이후 활동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버마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 중심을 담당했고, 현재는 집권 여당인, 민족민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한국 지부는 미얀마 민주화 이전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버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내 시민단체와 활발히 연대하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이트에 연결이 불가하며, 관련 기사는 민족민주동맹 한국지부의 내툰나잉 의장 부고 관련 기사(2015/09/10)가 웹사이트 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최신의 기사였다. 국내 이주 버마인들이 자국의 민주화를 위해 스스로 결성한 [버마행동]은 2015년 버마 민주화와 아웅산 수치 당선 관련 게시글이 마지막이었으며, [버마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찾을 수 없었다.

2006년 당시 “버마와 우리”라는 사이트를 따로 개설, 운영했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현재 “버마와 우리”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국제연대위원회 게시판을 통해 미얀마 민주화, 인권 문제와 관련된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로힝야 사태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내에서 ‘아시아’로 분류되어 있고, 참여연대는 로힝야 문제와 관련한 성명 발표, 강연회 공동 주최,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이하 국제민주연대)]는 주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루는 단체로 현재까지도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로힝야 사태와 관련해서는 2016년 설립된 시민단체인 [아시아 인권 디딤돌 아디: 이하 아디]와 함께 성명, 집담회, 세미나, 강연, 기자회견 등의 형태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서에 인권 분야 활동 단체로 분류되어 있고, 미얀마와 연대 운동을 진행한 단체 10개 중 현재 로힝야 사태와

관련된 활동 및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와 [국제민주연대] 뿐이다. 2016년에 창립한 [아디], 불교 기반 단체인 [신대승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로HING야 문제를 다루고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는 5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현재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로HING야 사태와 관련한 연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로HING야 사태를 인권과 관련한 의제로 설정하는 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디]의 활동가들은 국내 시민단체가 로HING야 사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지 못하는 요인을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 번째는 로HING야 사태가 소수에 대한 폭력, 소수의 기본권 및 인권의 박탈의 틀로 비춰지기 보다는, 무슬림과 난민 이주자의 틀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아직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는 난민과 이주민, 이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동성애 이슈라든지 양심적 병역 거부하는 전통적인 우리 시민사회의 인권 이슈였다면, 지금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이슈 중에서도 층위가 생긴 것 같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소수자로 등장한 무슬림, 이주민, 난민에 대해 차별과 혐오가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이동화 활동가 2018/04/05). 즉,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의제설정 기능을 해온 주제들 중, 어떤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져왔던 동성애, 여성 인권, 장애인과 같은 주제들이 주류였다면 무슬림, 난민, 이주자는 아직 비주류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버마 민주화 운동처럼 명백하게 ‘나쁜 군부와 대립하는 민주화 운동 진영’이라는 방식으로 선과 악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함께 하고 연대하기 편하지만, 로HING야 사태처럼 사안이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거나 한 측의 입장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대의 확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디]의 입장에서 봤을 때 로HING야 사태는 너무나 명백한 인권탄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독립전쟁, 누군가에게는 부역자 처단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사실 확인이나 공론장에서의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민단체들의 많은 공감과 지지를 얻고 연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가들의 분석은 한국의 시민단체 역시 로HING야 사태에 주로 댓글을 다는 네티즌과 같이 로HING야 사태를 인권 탄압에 해당되는 사태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정치적이거나 난민, 무슬림, 이주자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인식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 (2) 갈등과 연대

2006년 당시에 파악된 미얀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는 국내 활동가들의 연대와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자 집단, 그리고 그들이 결성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현재 미얀마 로HING야 사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며, 특히 국내 거주 미얀마 이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의 협력은 전무하다. 오히려 로HING야 사태와 관련된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와 국내 거주 미얀마 이주민 사회와의 입장과 견해는 충돌하고 있다.

앞서 2006년 당시 국내 이주 버마인들로 결성되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한국 시민사회와도 긴밀한 연대를 유지했던 [버마행동]의 활동가의 최근 SNS를 살펴보면 로HING야 사태 해결과 인도적 접근을 주장하는 한국의 시민단체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재한 미얀마인, [버마행동] 활동가의 SNS상 로힝야 관련 게시물 중 일부

한국언론은 미얀마에 일어난 방갈리족 테러집단을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미얀마엔 로힝야이라는 거짓 민족은 없고,지금 이들의 공격은 평화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훼손하려는 테러 행위입니다. [munhwa.com/news/view.html...](http://munhwa.com/news/view.html...)

이들(로힝야)은 미얀마의 135개 소수민족에 포함 되어 있지않습니다.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민족간 갈등 또는 종교적문제도 아닙니다.출입국법을 위반해 국경을 넘어 온 미입국한자들, 그리고 테러행위 이 2가지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민꼬나이-88세대

편견으로 이양희 유엔미얀마특별보고관 사퇴요구  
UNHRC President urged to remove UN SpecialRapporteur on MyanmarProfessor YangheLee for bias [theapolitical.in/homenews/un-hu...](http://theapolitical.in/homenews/un-hu...)

---

**벵갈리(로힝야 이름가칭)들의 미얀마인들에게 저질른 인종청소  
GENOCIDES - WHAT THE WORLD SHOULD KNOW**

이 [버마행동] 활동가의 입장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이주민, 미얀마 국민, 미얀마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 이주민들은 2017년 9월 유엔난민기구 앞에서 ‘한국거주 미얀마인들’이라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집회에서의 주제는 “미얀마 아라칸주 내 ARSA 테러행위 강력 비판, 응징 요구! 아웅산 수지 여사와 미얀마 정부 정책 지지!”였으며, 그들은 “ARSA 테러행위 중단하라”, “아웅산 수지 여사와 미얀마 정부를 지지한다”, “로힝야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아니다”, “라카인주의 평화를 지키자”, “미얀마의 평화를 지키자”, “ARSA 테러리스트 꺼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로힝야족이 최근 벵갈에서 넘어온 불법 이주자 벵갈리족(Bengali)이라 주장하고, 이런 불법 이주자들에게 미얀마 정부는 시민권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로힝야가 이에 대해 테러집단을 조직하여 경찰초소를 공격하고 미얀마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이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는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유엔이 로힝야 사태를 ‘인종 청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는 편향된 표현이라는 점 역시 덧붙이고 있다. 즉, 미얀마 인들은 앞서 다룬 댓글들의 내용과 같이 로힝야는 미얀마에 존재하지 않는 종족이며, 힌두교도와 불교도에게 폭력은 먼저 자행하는 테러 집단이며, 벵갈에서 넘어온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고 그를 지칭하는 벵갈리(Bengali)로 로힝야를 부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로힝야 문제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민주연대]와 [아시아 인권 디딤돌 아디: 이하 아디]와 같은 시민단체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이 두 단체의 입장은 단체가 진행해온 행사와 활동과 기고문, 그리고 [아디]의 경우에는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국제민주연대]는 2017년 8월, 27개 시민단체<sup>5)</sup>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미

5) 미얀마 로힝야 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재)진실의 힘, 4.9통일평화재단, 경계를 넘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얀마 로HING자 학살을 규탄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로HING야 난민캠프의 상황을 나누고 재한 로HING야 난민과의 만남을 자리를 마련한 “로HING야 난민을 만나다”를 참여연대, 아시아 인권 디딤돌 아디, 생명평화 아시아, 해외민주운동연대와 함께 공동주최하였으며, 가장 최근에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함께 “로HING야: 제노사이드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특별공개강연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제민주연대]의 사무국장인 나현필 활동가는 로HING야 사태에 대해 활동가로서의 소회를 적은 기사(나현필 2017)를 기고하기도 했는데, 이 기고문에서 나현필 활동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집회를 통해 로HING야 사태를 정당화하고 미얀마 정부를 옹호하는 것을 보고 “한국의 활동가들인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정당한 시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탄압을 정당화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과 “미얀마 정부군의 대량학살을 정당화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함께 활동하고 연대했던 사람들이었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집단적인 국가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친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아무리 군부의 영향력이 막대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함께 싸워왔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미력하나마 함께 싸워왔던 단체의 활동가로서 미얀마 활동가들에게 로HING야 문제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는 “로HING야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미얀마 활동가들이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인다. [국제민주연대]가 로HING야 사태에 대해 주최하는 행사들의 내용은 로HING야 사태에 대한 원인을 역사적으로 접근하고 이러한 내용을 일반 시민, 그리고 연대하는 단체와 공유하고, 현재 로HING야 난민의 피해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나현필 활동가의 말처럼 로HING야 사태에 집중하는 한국의 시민단체는 미얀마인, 미얀마 정부와는 달리 로HING야 사태를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잔혹한 방법에 의해 학살에 가까운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로HING야 사태’를 중심 활동 의제로 상정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아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디는 2016년 창립한 신생 시민단체로, 아시아 곳곳의 인권침해 및 분쟁 지역 현장의 활동가, 그리고 피해자에 주목하는 것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아디는 무슬림과 불교도의 종교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미얀마 메이 크틸라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첫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로HING야 실태조사, 로HING야 인권실태 보고서 발간, 집담회 “미얀마 소수민족 로HING야 인권실태와 대응” 개최, 로HING야 관련 강연 진행, “이양희 UN 특별 보고관에게 듣는 로HING야 이야기” 공동 주최, “로HING야 난민을 만나다” 강연 공동 주최, 로HING야 시민권법 현지조사에 이르기 까지 국내 시민단체 중 가장 많은 로HING야 사태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민주연대]와 함께 로HING야 사태에 대한 국내 시민단체의 네트워킹과 연대를 주도하고 있다.

로HING야 난민캠프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최근에는 로HING야 시민권 박탈을 결정적 계기가 된 82년 시민권법에 대한 조사를 위해 미얀마를 오가는 아디의 김기남 활동가와 이동화 활동가는 로HING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마족과 소수민족들이 독자적인 국가로서 왕족, 혹은 다른 집

---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아디,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단으로 경쟁하고 점령하고 싸우면서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그 땅의 주요 역사들이 있고, 독자적인 문화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힝야도 버마족이 그랬던 것처럼 로힝야 스스로 자기 생존과 독립을 위해 싸워왔다는 것이다. 각자의 독립과 생존을 위해 각자의 전술을 택했던 시기가 있고, 버마족이 처음에 버마족의 독립을 위해 일본 식민세력과 손을 잡았던 것처럼 로힝야나 다른 소수종족들이 영국 손을 잡았던 것이지 일본 식민지처럼 조선인과 일본 식민세력이라는 대립각이 명확했던 것과 당시 미얀마의 상황은 달랐다. 당시 조선의 상황이 평면적이었다고 한다면 미얀마의 상황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이었기 때문에 일본 식민시기 부역자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앞서 다른 국내 네티즌들이 로힝야를 친일 부역자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진다.

최근 한국에서 보도되는 로힝야 기사의 대부분은 로힝야를 영국 식민지배 시기에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이주자로 지금 벵갈리로 불리는 불법이주자가 되어 82년에 시민권이 박탈된 사람들이라고만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 사람들이 오래 동안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주장과 입장이 존재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원주민 인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현재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투표권도 인정되고 정부 내 관료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런데 군사정부 들어서면서 이러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로힝야 사태에 대해 기사를 쓰는 사람조차도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태를 정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김기남 활동가 2018/04/05).

이처럼 [아디]의 활동가들 역시 국내 거주 미얀마인, 미얀마 정부와 같이 로힝야를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불법이주자라고 보기 보다는, 로힝야와 미얀마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함께 연대했던 국내 거주 미얀마인, 단체들과 오늘날 로힝야 사태에 대해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디]의 활동가들도 역시 체감하고 있었다. 워낙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며, “미얀마 내부 시민사회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많은 단체들과 로힝야 문제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는 것은 거부하기 힘든 사실”이라는 것이다. 논리나 사실에 근거한 대화보다는 증오라는 감정과 신념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증오에 찬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서 나현필 활동가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함께 연대하지 못한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이동화 활동가 2018/04/05)

#### 4. 결론

로힝야 사태는 국내에서 작성된 기사가 전달하고, 국내의 네티즌들이 인식하는 영국식민시기에 넘어온 불법이주민이어기 때문에, 혹은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소수종족이기 때문에, 불교를 잠식하려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2017년 8월에 발생한 두 집단 간 폭력 사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로힝야 사태는 스스로를 토착민으로 인지하고 있는 로힝야와 그러한 로힝야를 이주민으로 간주하는 불교도 버마족의 갈등이라는 종족의 문제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2012년 심각한 폭력사태로 촉발되기 이전까지는 다수종족과 소수종족 간의 분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스스로를 '미얀마의 빈 라덴'이라고 부르는 승려, 아신 위라뚜(Ashin Wiratu)로 대표되는 버마족 승려집단 마바따(MaBaTha)가 로힝야에 대한 탄압을 주도하는 것은 무슬림이 미얀마 내부에서 많아질수록 상좌불교라는 미얀마의 전통이 붕괴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를 '인구학적 안보의 딜레마(Demographic Security Dillema)'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면서 로힝야 사태의 원인에 대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연구(Blomquist 2015)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다수종족 및 다수종교가 소수종족 및 소수종교를 탄압하는 상황이 미얀마 내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이해득실 차원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상호작용일 가능성도 로힝야 사태의 원인과 심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민주화 이행을 맞이하고 있는 미얀마의 현 상황에서 아웅산 수찌와 군부가 모두 영향력을 가지는 이중 권력현상이 발생하고 로힝야를 포용하는 여부에 따라 각 정치권력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권력경쟁에서 파생된 사태로 로힝야 사태를 바라볼 수도 있다.

나아가 로힝야 사태를 토착민과 이주민의 갈등으로, 불교도와 무슬림의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자체가 민주화 이행기에 발생하는 권력 공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혹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치행위자들의 정치적 전략에서 파생되는 논리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태국은 국내의 정치적 안정성과 공고화를 이루기 위해 태국 문화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인 불교를 조직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성공한 사례이다(Hamayotsu 2008). 반면, 미얀마의 경우에는 군사정권 당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불교를 통제하고, 종교 분쟁을 조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는 분석(김성원 2006; 장준영 2015)과 결과적으로 군부의 불교 통제와 갈등 유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지지받지 못해왔으며, 오히려 서양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와 연대하여 반군부, 반권위주의 운동에 불교가 가담하는 등, 실패해왔다는 분석이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Matthews 1993).

이처럼 로힝야 사태는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하기에 어려운, 복잡한 분석과 고찰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룬 것과 같이 한국의 시민사회는 일방의 주장만을 수용하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로힝야 사태에 반응하고 있다. 본 논문은 로힝야 사태에 대한 일련의 반응과 대응에 대해 두 가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로힝야 사태는 단순한 인과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것임을 인지하고 역사에 대한 서술과 설명을 통해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는 언론의 책무이기도 하고, 학계의 책무이기도 하다. 로힝야 사태에 관련한 국내의 연구가 여럿 진행되기는 했지만(김성원 2006a, 2006b; 김인아 2018; 박장식; 1996, 2013; 장준영 2012, 2013, 2015, 2017), 연구들은 주로 논문의 형태로 학회지에 게재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참여연대가 연세대 김형중 교수와 함께 로힝야 문제에 대해 팟캐스트를 진행한 것이 접근성이 높은 사례로 유일하다. 언론은 저널리즘을 위해, 그리고 학계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며 로힝야 사태에 대한 연구를 언론

에 기고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러한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로힝야 사태는 다양한 원인 분석과 역사적 고찰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도적 관심에서 출발하고 바라봐야 하는 사태이다. UN은 로힝야를 “지구상에 가장 박해받는 소수민족”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태국에 머물면서 로힝야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심층 취재를 해온 이유경 기자는 최근 한 강연에서 오늘날 국내의 상황을 “지구상에 가장 박해받는 소수민족에게 가장 가혹하게 댓글을 다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라고 묘사했다. 미얀마에 거주하고 있던 120만 명의 로힝야족이 현재는 미얀마 내 난민캠프에 12~14만 명, 러카잉주 로힝야족 거주 마을에 6~8만 명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유경 2018). 그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양측의 입장이 대립된다고 하더라도, 방화, 고문, 총기살해 등을 겪었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추정도 불가능한 현재의 로힝야족의 상황은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관련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침해할 수 없는 고문, 구금, 그리고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라는 인권의 세 가지 “치명적 핵심”(deadly core; Lewellen 1995)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다. [아디]의 활동가들도 “로힝야들 스스로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요구하면서 차별이 철폐되고 시민권이 부여되는 방식을 해결 방법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로힝야 사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심은 당연한 일이며, 최소주의적 인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기남 2018/04/05).

즉, 로힝야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무국적자가 되고 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로힝야족이 이 사태로 인하여 어떠한 인권 침해를 겪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로힝야 사태를 인권 중심의, 인도주의적 의제로 설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제적인 인권 관련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로힝야 사태에 대해 한국은 시민사회가 인도주의적 관심을 주도하고, 언론과 학계는 사태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연구 수행 및 정보 접근성 증진을 목표로 두고 연대하는 것을 통해 로힝야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은 로힝야 사태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한 역사적 맥락 연구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닌다. 로힝야 사태에 대해 국내 일반 시민들이 보이는 반응이 한 측의 입장만을 수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미얀마의 분열된 왕국,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와 연결될 필요가 있으며, 연방국가로서의 미얀마의 특수성 등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치학적 연구는 로힝야 사태에 대한 적절한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힝야 문제를 다루는 국내의 시민단체들 중 하나의 단체만을 인터뷰 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미얀마와 관련된 의제는 다루지만 로힝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단체, 국내 거주 미얀마인 공동체 등과 같이 서로 다른 노선을 걷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조사가 수행되어야 로힝야 사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응과 대응에 대한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다만, 본 논문은 공통적 관심사에 대한 공동 연구 진행이나 주제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과 같이 학계와 시민사회 간 연대의 일환으로 학도와 시민단체 활동가가 함께 걷는 네트워크의 출발점 중 하나로서 가치를 지닌다.

## 5. 참고문헌

- 권혁률. 2015. “이슬람포비아.” 『새가정』 62. pp. 96-97.
- 김동문. 2016. “이슬람포비아, 조장인가 실체인가?” 『진보평론』 67. pp. 138-159.
- 김인아. 2018. “미얀마 로힝자 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 『아시아연구』 21(1): 25-50.
- 김성원. 2006a. “미얀마 군사정부의 종교정책: 회유와 견제.” 『동남아연구』 16(1): 23-44.
- 김성원. 2006b. “미얀마의 이방인 라카인 무슬림 로힝자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6(1): 59-78.
- 나현필. 2017. “로힝야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활동가의 고민.” 『월간 위커스』 37호.
- 뎀 마웅마웅 탄. 2005. “미얀마: 변화하는 군부.” 존 핀스톤 편. 정연식 역. 『동남아의 정부와 정치』. pp. 서울: 심산.
- 마이클 아웅뜨윈. 1992. “버마(미얀마)의 역사에 있어서 불교개혁의 역할: 종교정화의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동남아정치연구회 편. 『동남아 정치와 사회』. pp. 서울: 한울.
- 문시영. 2016. “‘팩트 체크’와 ‘셀프 체크’: 이슬람 포비아의 윤리학적 성찰.” *Muslim-Christian Encounter* 9(2): 45-68.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 박장식. 1996. “미얀마의 종족분쟁의 양상과 국민통합의 전망.” 『동남아연구』 4: 29-56.
- \_\_\_\_\_. 2013. “미얀마 여카잉 무슬림(로힝자)의 딜레마 재고: 종교기반 종족분쟁의 배경과 원인.” 『동남아시아연구』 23(1): 235-276.
- 박종수. 2017. “한국사회의 이슬람혐오 현상과 쟁점: 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29: 49-70.
- 서남포럼. 2006. 『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서울: 아르케.
- 이유경. 2018. “로힝야: 제노사이드 당하는 사람들.” 04/13. 특별공개강좌 발제문.
- 장준영. 2012. “버마/미얀마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가능성의 예술을 넘어서.” 『민주』 3: 162-181.
- \_\_\_\_\_. 2013. “미얀마의 정치적 자유화와 정당정치: 미얀마식 민주주의를 향하여.” 『비교민주주의연구』 9(1): 5-34.
- \_\_\_\_\_. 2015. “미얀마 무슬림과 종교분쟁: 국민통합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4(3): 307-338.
- \_\_\_\_\_. 2017. “반복되는 로힝야족 문제: 미얀마와 국제사회의 평행선.” 『EMERiCs 이슈분석』. KIEP.
- 전제성. 2006. “한국 인권운동의 동아시아 연대활동 현황과 평가.” 서남포럼. 『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서울: 아르케.
- 최재현. 2003. “미얀마 버마족의 생활 리듬과 불교.” 『국제지역연구』 7(2): 313-328.
- Abdelkader, Engy. 2013. "The Rohingya Muslims in Myanmar: Past, Present, and Future." *Oregon Review of International Law* 15: 393-411.
- Bainus, Arry, and Dina Yulianti. 2016. “Debating ‘Nationail Interest’ vis-a-vis Refugees: Indonesia's Rohingya Cas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Politics.
- Bischoff, Roger. 1995. *Buddhism in Myanmar: A Short History*. Kandy, Sri Lanka: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 Blomquist, Rachel. 2015. “Ethno-Demographic Dynamics of the Rohingya-Buddhist

- Conflict.” Georgetown University.
- Braun, Eric. 2012. “Reviewed Work(s): Modern Buddhist Conjunctures in Myanmar by Juliane Schober”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1(4): 1189–1191.
- Carbonnel, Laure. 2009. “On the Ambivalence of Female Monasticism in Theravāda Buddhism: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Monastic System in Myanmar.” *Asian ethnology* 68(2): 265–282.
- Chan, Aye. 2005. “The Development of a Muslim Enclave in Arakan(Rakhine) State of Burma(Myanmar).” *SOAS Bulletin of Burma Research* 3(2): 396–420.
- Charney, Michael W. 1999. “Where Jambudipa and Islamdom Converged: Religious Change and the Emergence of Buddhist Communalism in Early Modern Arakan, 15th–19th Centur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Cheung, Samuel. 2011. “Migration Control and the Solutions Impasse in South and Southeast Asia: Implications from the Rohingya Experience.” *Journal of Refugee Studies* 25(1): 50–70.
- Coates, Eliane. 2014. “Sectarian Violence Involving Rohingya in Myanmar: Historical Root and Modern Triggers.” Middle East Institute.
- Fink, Christina. 2001. *Living Silence: Burma under Military Rule*. Zed Books.
- Fuller, Thomas and Joe Cochrane. 2015. “Rohingya Migrants From Myanmar, Shunned by Malaysia, are Spotted Adrift in Andaman Sea.”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14 May. (검색일: 2017. 3. 30.)
- Gil, Sylwia. 2008. “The Role of Monkhood in Contemporary Myanmar Society.” Friedrich Ebert Stiftung.
- Grønlund, Christine Alstad. 2016. “Refugees in Exodus: Statelessness and Identity: A Case Study of Rohingya Refugees in Aceh, Indonesia.” MS thesis. Universitetet i Agder; University of Agder.
- Hamayotsu, Kikue. 2008. “Beyond Doctrine and Dogma: Religion and Politics in Southeast Asia.” Eric Martinez Kuhonta·Dan Slater·Toung Vu eds. *Southeast Asia in Political Science: Theory, Region, and Qualitative Analysis*. pp. 171–198.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re, Mang, and Victorian Chin Baptist Church. 2013. “Religion: A Tool of Dictators to Cleanse Ethnic Minority in Myanmar?.” *The Asian Conference on Ethics, Religion and Philosophy 2011(Conference Proceeding)*. pp. 176–184.
- Htet Naing Zaw. 2017. “US ‘Ethnic Cleansing’ Charge Won’t Help Govt Solve Rakhine Issue, President’s Office Says.” *The Irrawaddy*. 24 November. (검색일: 2017. 11. 26.)
- Jones, Lee. 2017. “A Better Political Economy of the Rohingya Crisis.” *New Mandala*. 26 September. (검색일: 2017.10.18.)
- Kabilsingh, Chatsumarn. 2010. “Institutional Authority: A Buddhist Perspective.” *Buddhist–Christian Studies* 30: 147–157.
- Kawanami, Hiroko. 2009. “Charisma, Power(s), and the Arahant Ideal in Burmese–Myanmar Buddhism.” *Asian Ethnology* 68(2): 211–237.

- Kipgen, Nehginpao. 2013. "Conflict in Rakhine in State in Myanmar: Rohingya Muslims' Conundrum."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33(2): 298–310.
- \_\_\_\_\_. 2014. "Addressing the Rohingya Problem." *Journal of Asian and African Studies* 49(2): 234–247.
- Kiraga, Esther and Angela Li Rosi, Tim Morris. 2011. "State of Denial: A review of UNHCR's Response to the Protracted Situation of Stateless Rohingya Refugees in Bangladesh." UNHCR PDES (UNHCR Policy Development and Evaluation Service).
- Kyaw, Nyi Nyi. 2008. "Rohingya Muslims: Myanmar's Forgotten People." RSIS Commentaries 12.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Kyaw, S. W. 2014. "Myanmar's Religious Violence: A Buddhist 'Siege Mentality' at Work." RSIS Commentaries 037.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Laksono, Dandhy Dwi. 2017. "Daw Suu and Ibu Mega." *New Mandala*. 19 September. (검색일: 2017.10.18.)
- Leider, Jacques P. 2008. "Forging Buddhist Credentials as a Tool of Legitimacy and Ethnic Identity: A Study of Arakan's Subjection in Nineteenth-Century Burma."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51(3): 409–459.
- \_\_\_\_\_. 2014. "Rohingya: The Name, the Movement, the Quest for Identity." *Nation Building in Myanmar*. pp. 204–255.
- Lewa, Chris. 2009. "North Arakan: An Open Prison for the Rohingya in Burma." 2009. *Forced Migration Review* 32: 11–13.
- Lewellen, Ted C. 1995. *Dependency and Development: An Introduction to the Third World*. Massachusetts: Bergin & Garvey.
- Marshall, Andrew R.C. 2013. "The War on the Rohingyas: Myanmar Gives Official Blessing to Anti-Muslim Monks." *Reuter*. June 27. (검색일: 2017.3. 30.)
- Matthews, Bruce. 1993. "Buddhism under a Military Regime: The Iron Heel in Burma." *Asian Survey* 33(4): 408–423.
- OHCHR. 2017. "Interviews with Rohingyas Fleeing from Myanmar Since 9 October 2016. Flash Report.
- Parnini, Syeda Naushin. 2013. "The Crisis of the Rohingya as a Muslim Minority in Myanmar and Bilateral Relations with Bangladesh."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33(2): 281–397.
- Perrière, Bénédicte Brac de la. 2009. "An Overview of the Field of Religion in Burmese Studies." *Asian Ethnology* 68(2): 185–210.
- Robinson, Ian G. and Iffat S. Rahman. 2012. "The Unknown Fate of the Stateless Rohingya." *Oxford Monitor of Forced Migration* 2(2): 16–20.
- Schmidt-Leukel, Perry. 2006. "Buddhism and the Idea of Human Rights: Resonances and Dissonances." *Buddhist-Christian Studies* 26: 33–49.
- Schober, Juliane. 2006. "Buddhism, Violence and the State in Burma (Myanmar) and Sri Lanka." *Disrupting Violence: Religion and Conflict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p. 51–69.
- Singh, Jasminder and Muhammad Haziq. 2016. "The Rohingya Crisis: Regional Security

- Implications.” RSIS Commentaries 293.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Southwick, Katherine. 2015. “Preventing Mass Atrocities Against the Stateless Rohingya in Myanmar: A Call for Solu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8(2): 137–156.
- Sundhaussen, Ulf. 1995. “Indonesia's New Order: A Model for Myanmar?” *Asian Survey* 35(8): 768–780.
- Szep, Jason. 2013. “The War on the Rohingyas: Buddhist Monks Incite Muslim Killing in Myanmar.” *Reuter*. 8 April. (검색일: 2017. 3. 30.)
- Tin Htet Paing. 2017. “Police Chief: Assassination of U Ko Ni Was Driven by ‘Personal Grudge’.” *The Irrawaddy*. 27 Feb. (검색일: 2017. 11. 21)
- Towadi, Melissa. 2017. “The Application of Sharia Maqashid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nority of Muslim Rohingya in Regional ASEAN (Indonesia–Malaysia).” *Journal of Indonesian Legal Studies* 2(1): 43–54.
- Walton, Matthew J. and Susan Hayward. 2014. “Contesting Buddhist Narratives: Democratization, Nationalism, and Communal Violence in Myanmar.” *Policy Studies* 71: 1–65.
- Ware, Anthony. 2015. “Secessionist Aspects to the Buddhist–Muslim Conflict in Rakhine State, Myanmar.” Damien Kingsbury & Costas Laoutides eds. *Territorial Separatism and Global Politics*. pp. 153–166. London: Routledge.
- Wikipedia. 2017. “Rohingya People.” [https://en.wikipedia.org/wiki/Rohingya\\_people](https://en.wikipedia.org/wiki/Rohingya_people). (검색일: 2017. 06. 10.)
- Zarni, Maung, and Alice Cowley. 2014. “The Slow–burning Genocide of Myanmar's Rohingya.” *Pacific Rim Law & Policy Journal Association* 23(3): 681–752.

<참고기사>

- 국민일보. 2017/11/27/. "'로HING야 학살' 수치 돌 맞을 때, 주범은 웃는다."
- 김현지. 2017/12/16/. "아웅산 수치 침묵 속에 아이들이 산채로 태워지고 있다." 프레시안.
- 노컷뉴스. 2017/09/22/. "로HING야족, 불타는 마을에서 쫓겨나 또다른 생지옥으로."
- 뉴스1. 2017/09/09/. "미얀마, 로HING야족에 수용소·구호물품 제공... 국제사회 비난 의식한듯."
- \_\_\_\_\_. 2017/09/13/. "미얀마 인종청소에 항의하는 파키스탄 무슬림들."
- \_\_\_\_\_. 2017/09/15/. "숨진 아기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미얀마 로HING야 난민 여성."
- \_\_\_\_\_. 2017/12/10/. "미얀마의 '로HING야 지우기' 현실화 되나"
- \_\_\_\_\_. 2018/02/17/. "캐나다, 로HING야족 학살 지위 미얀마 장군에 제재."
- 서울신문. 2017/11/18/. "'닭떼 잡듯 칼로 마구..' 로HING야족 소녀가 전한 '그날'"
- 연합뉴스. 2017/09/12/. "'히잡 쓴 힌두교도가 로HING야족?' 딱걸린 방화조작 사진."
- \_\_\_\_\_. 2017/09/20/. "'인종청소' 로HING야 마을들 초토화 위성으로 재확인."
- \_\_\_\_\_. 2017/09/30/. "미얀마서 학대받다 밀려난 로HING야 난민 '돌아가고 싶지 않다'."
- \_\_\_\_\_. 2017/10/13/. "'무슬림은 다른 인간' 로HING야 혐오 이끄는 극단주의 승려."
- \_\_\_\_\_. 2017/10/14/. "로HING야 비극... 미얀마 폭력 피하다 방글라 코끼리에 참변."
- \_\_\_\_\_. 2017/11/02/. "아웅산 수치, 로HING야 '인종청소' 사태 현장 첫 방문."

\_\_\_\_\_. 2018/01/04/. "르완다 대학살 이어 로힝야 인종청소에도 침묵하는 지구촌."  
\_\_\_\_\_. 2018/02/08/. "미얀마, 로힝야족 식량공급 차단 천천히 굶겨 죽인다."  
\_\_\_\_\_. 2018/02/13/. "'인종청소' 논란 미얀마, 불도저로 로힝야족 흔적도 지웠다."  
MBC. 2017/11/07/. "'로힝야는 미얀마 민족이 아니다!'"  
SBS. 2017/09/06/. "'아웅산 수치 노벨상 박탈하라' ... '인종 청소' 비판 쏟아져."

#### <웹사이트>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 <http://www.khis.or.kr/main.asp>.  
따비에 홈페이지. <http://thabyae.net/>.  
만원계 블로그. <http://blog.jinbo.net/burma/>.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kdemo.or.kr](http://www.kdemo.or.kr).  
버마 문제를 생각하는 시민의 모임 카페. <http://cafe.daum.net/burma>.  
부천이주민지원센터 홈페이지. [www.bmwh.or.kr](http://www.bmwh.or.kr).  
아시아 인권 디딤돌 아디 블로그. <https://blog.naver.com/adi2017>.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 [www.action.or.kr](http://www.action.or.kr).  
Myanmar Population. 2017.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myanmar-population/>. (검색일: 2017. 11. 21.)

#### <인터뷰>

김기남(남). 2018/04/05/. 아시아 인권 디딤돌 아디 활동가.  
이동화(남). 2018/04/05/. 아시아 인권 디딤돌 아디 활동가.